



Web Contents



2024년 05월 02일 05시 35분

타임캡슐

2016.01.09 조회수 126 등록자 장원선

언제나 정열가득 포스작렬 정권숙 선생님이 1인 3역을 해주셔서 그리고 극단 새결 식구들의 열정이 더해져서 멋진 하모니가 들보였어요

내용은 무겁고 맘아픈 청소년들의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인데

극이 끝난 후 관객이 직접 극속으로 참여해서 결말을 바꿔보고 다 함께 생각해볼 수 있어서

뿌듯한 시간이었어요

관객분들 적은게 안타까웠지만

이런 멋진 극단이 목포에 있어주심이 새삼 감사했네요

지난 5월 돌아오지 않는 5월도 너무나 슬프고 아프게 봤던 기억도 새록새록 하네요

첨부파일

 time.jpg (352 hit/ 51.5 KB) [미리보기](#)

[전체\(Zip\)다운로드](#)

글쓰기

목록

이전글

체코의 선율을 만나다 프라하 카메라타 스트링 오...

다음글

12월 문화가있는 수요일 "하나연"

MokPo - Si
Web Contents

